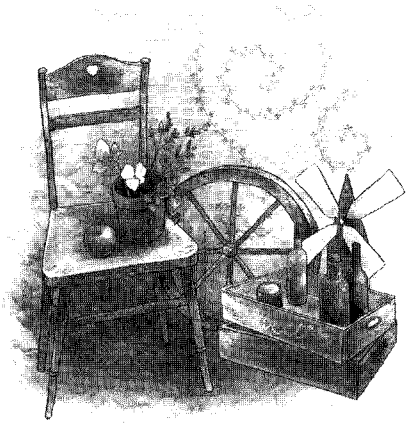
예체능계 입시제도 이대로 갈 것인가?

김양수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계의 입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의 저명한 한 미술대학은 실기고사 없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언하였겠는가? 이러한 잡음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예체능계의 입시과열로 인한 비리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나라 디자인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항시 입시제도를 청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이번 기회에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들을 제안하려 한다. 그러나 예체능계 이전에 이 나라 교육 전반과 사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예체능계열 또한 전체입시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학입학 이전에 초·중등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8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은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중학교에서의 교육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이라니? 그렇다면, 중등교육이란 무엇이고, 기초적인 전문교육이란 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와 지식을 갖고 학교를 나서야 하는지 우리의 교육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수년 전 한 뉴스에서 본 미국장학사의 인터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미국의 여자 장학사는 한국의 조기유학생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한국의 유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학업의 성취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정작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이해하지 있지 않다."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많은 고등학생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입생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해당분야의 커리큘럼이나 진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입학한 경우가 허다하며 졸업 후에 다른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상식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려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를 밟은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보통 인문계 고교를 진학할 때 대학을 거쳐 사회에 나갈 것이라고 이해하며 진학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어떠한가? 학과와 대학은 결정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무지할 만큼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고교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목적 없이 전공이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인생의 목적 없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새벽부터 한밤까지 정규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한 후 사설학원을 전전한다. 도무지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인생에 대한 이해와 가치, 가족의 의미, 사회관 시각 그리고 진로에 대한 확신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날까?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다양한 문화 및 취미활동 또는 대자연을 접하면서 천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졸업 이후 평생 단 한 번조차 사용하거나, 기억할 필요 없는 지식을 외우고,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고등학생들은 훗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된다면 똑같이 그들의 2세들에게 같은 삶과 가치를 강요할 것이 뻔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대학에는 경쟁에서 이긴, 미래에 대한 이정표 없는 또한 학문에 대한 이해나 애착이 없는 학생들로 가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은 현재 긍정적인 의미의 과정이나 학문의 도장이 아닌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한 방법이나 경유지로 전락하였다. 이는 많은 부분 대학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대학을 바라보는 또는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의 시각에서 오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학생이 순수한 학문적 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입학하는가? 필자는 졸업반이 되도록 스스로 정한 진로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여 왔다. 대학을 진학하며 진로를 잘못 정한 학생은 또다시 미래를 재설정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적·교육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교육과 사회의 책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목적보다는 수단과 방법 중심의 가치"를 형성시킨 이 사회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된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은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통해 입시정책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려는 것인가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입시에 있어 도출된 사회·교육적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수험생과의 결탁이나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시의 비밀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교수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과의 연관을 금지한다든지 등의 일은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가치 그리고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교육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행정부처와 대학이 어떠한 정책이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히 시행하여도 늘 허점은 있게 마련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기댈 것이다. 단언컨대 세부규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교육은 더 많은 해법과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릇된 가치를 갖고 양심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법이란 또 하나의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중등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정리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길밖에는 없다. 고등학생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고, 대학이 목적지로 가기 위한 많은 긍정적 경유지 중의 하나라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교육열과 극단적인 교육적 선택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학생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대학보다는 전공이, 지명도 보다는 실리를 우선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본은 자신의 본질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야말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본질이라 역설하는 바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은 적성개발과 진로탐색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 고등학교, 교육정책당국, 입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집행하길 희망한다.

- 타인의 인생이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소설, 시와 같은 문학작품의 독서량을 절대적으로 늘린다.
- 특별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 사설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여, 고등학생들이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위한 시간을 배려한다.
- 이동식 수업과 일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문과 접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은 예체능계열 교수를 믿는가?

초·중등교육에서, 고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전제되어야 대학은 학습동기가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일반적이며, 원론적인 원칙은 예체능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예체능계열에 대한 입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기고사이다. 예체능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입학을 위해 실기고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계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기고사에는 일

정부분 주관성 또는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예체능계열의 시험출제에서 평가까지 대학, 계열, 전공마다 천차만별의 실기고사가 존재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실기고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세밀한 세부규칙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입시의 목적을 되짚어보자. 대부분의 대학은 입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수한 인재란 어떤 인재일까? 우수한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학마다 또는 전공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전공은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성실한 인재를 바라며 또 어떤 전공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이나 소질이 뛰어난 인재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성적우수자든, 뛰어난 소질의 소유자든, 그것은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을 교육할 교수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과연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을 적절한 과정에 의해 뽑고 있을까? 필자는 그동안 소속대학은 물론 타 대학의 입학심사에 10년 이상 관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입시(과거도 마찬가지이지만)는 불행히도 교수가 전공에 맞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발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행 실기고사는 전문적 학문을 계승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공정하게 학생을 낙방시키기 위한 관문"이라고 역설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교수는 학생을 선택할 수도 없으며 선택해서도 아니 된다. 평가에 참여하지만 불공정이나 비리가 없다고 믿어지는 제도에 의해 선발된 익명의 학생을 가르칠 뿐이다. 가장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예체능계 분야의 학생을 행정상의 편의, 그리고 공정함을 위해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미리 공시된 주제범위와 형식의 단기간 고사를 통해 최저 반년, 길게 수년을 수학한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수년을 밤낮으로 공부했음에도 당일의 상태와 주제선정의 운으로 대학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평가를 당하는 학생도 괴로운 일이겠지만 평가를 담당하여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교수 또한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심도 있는 평가과정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자질을 판단하고 싶지만, 현실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면접을 예로 든다면, 교수는 학생의 이름은 물론 배경과 관계된 질문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없다. 그 밖에 규정이 허용치 않는 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제외한다면 면접고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리 준비된 질의 내용을 물어보는 정도라면 면접이 아닌 필기고사로도 충분할 터인데….

이와 같은 제한과 규제는 교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과거 공공연하게 교수가 고등학생들에게 실기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사설교육기관과 유착하는 등 많은 비리와 연루되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 사회가 지닌 교수에 대한 불신을 전적으로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며 사명감 없는 교수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교수가 불신을 받고, 입시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행정당국은 고교재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앞세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교육시장이 머지않아 개방되는 이 시점에 교육행정당국은 언제까지 보호와 규

제로 일관할 것인가?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주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교수와 그 소속대학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입시와 재정 투명도를 과감하게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로 삼으면 될 것이다.

학생은 스스로의 자질을 알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 대학을 선택할 자유가 있듯이 교수는 학문적 성향이 부합되는 학생을 선발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교수의 선발권은 학문적 발전을 위함이며, 물론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교육적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은 입시와 대학의 운영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공개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다. 부정 없이 깨끗하게 입시를 관리, 수행한 대학이 평가 상위에 오르고, 우선적으로 발전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대학과 교수 스스로 입시부정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평균율적 또는 일반적인 강제조항만으로 어떻게 대학 간의 학문적 차별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각 전공은 차별 타 대학의 동일전공과 차별화된 학문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예체능계열의 각 단과대학은 그 교육이념에 맞는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입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문적으로 타 대학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작품집! 불가능한 것인가?

예체능계열 중 특히 미술 · 디자인계열은 입시실기고사 이외에 작품집이란 것이 있다. 학생은 당일 실기고사 이외에 면접 시에 자신이 그동안 작업했던 몇 개(보통 10개 내외)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을 지참하여 면접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집이란 장기간 이루어진 작업의 모음으로서 실기시험 당일 보여주지 못한 창조성이나 표현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일일고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주요 자료이다. 해외의 많은 대학은 작품집을 당락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과거 작품집을 선발의 주요 자료로 인정했던 국립대학도 작품집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작품집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학생이 아닌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유층 자제의 경우 금전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우수한 작품집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작품집은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입시에서 제외되었다.

실제로 국내는 물론 유학생과 교포사회까지 작품집을 대리로 제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작품집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 면접 현장에서 그려보도록 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경우 대리제작자가 이를 감안하여 면접 현장에서 학생이 진실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연습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어떤 묘책을 내놓아도 사설기관은 또는 개인교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결국, 예체능계의 입시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국지적 해결방안은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도 끝없이 문제가 반복되

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학은 철저한 규제와 지원 속에 발전하여 왔다. 대학을 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정부의 많은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대학의 정원은 수도인구집중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의 논리 속에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산업과 학생의 요구에 적절히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과 오류를 범한 예도 적지 않다.

전국의 대학이 각각 차별된 학문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주력 분야가 뚜렷하다는 전제하에 만약 대학에 정원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 사회적 요구가 많은 분야의 전공은 지원율이 높을 것이며 대학이 정원 자율이 있다면 대학은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그리고 2년 또는 4년 후 해당분야의 적정 수의 인제가 배출되어 산업의 인재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또는 수요가 적은 학과는 자연스럽게 정원을 감축하거나 타 학과, 전공과 병합 또는 폐지될 것이다. 만약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으로 또는 사회의 요구이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와 낮은 취업률로 이어진다. 이 경우 대학의 지명도와 입시경쟁률은 자연스럽게 추락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점차 소외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적 대학발전 모델이 아닐까?

다시 문제의 작품집으로 돌아가 보자. 남이 제작한 작품집을 통해 특정대학에 필히 입학하려는 학생은 그 대학을 졸업한다면 취업과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기로 마음먹은 학생의 입학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 특정대학, 특정학과를 입학하여도 실력이 없어 수학할 수 없다면 가짜 작품집을 포기할 것이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 이후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대학졸업이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 그 중간 경로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과 적극성이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이 대학의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입시사설교육기관에 소비해야 하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앞서 말한 대로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이 변화한다면 소신이 있는 학생이 늘어나고, 대학이 첨예하게 학생을 선발하며, 졸업사정제도를 강화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려는 학생은 점차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라 본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지금까지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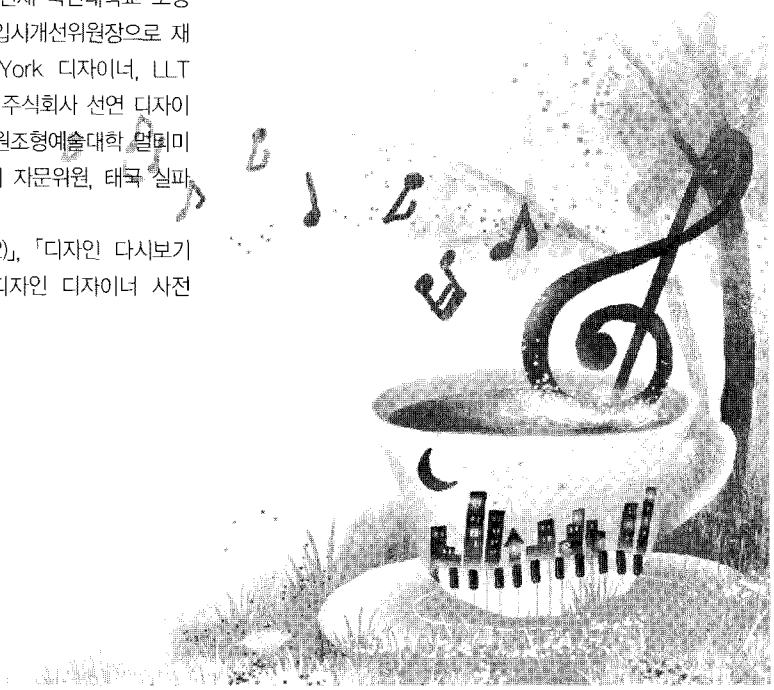
청소년교육 개혁 – 적성의 발견과 진로 탐색 중심, 사회참여와 대화
대학의 자율경영 – 입시제도, 정원 및 학과신설
대학의 책임운영 – 교육의 질적 향상, 졸업정원제 도입 및 책임시행
감사기능의 강화 – 행정당국의 철저한 비리 감사, 언론공개, 대학평가에 투명도 추가

예체능계의 입시에서 출발하여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다시 언급하지만, 현재 예체능계열도 일반입시의 틀로부

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가진 교육관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 예체능계입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입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각각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미봉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초체력을 보강하거나, 기본자세를 습득하지 않고 기교만을 연습 것과 같다. 교육과 입시에서 나타난 문제점 하나하나는 결국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약속과 믿음 그리고 자유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리적 또는 물리적 문제 이외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교육이 그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 입시에서 등장하는 난제들을 이해하고 그 기본적 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것이다. ■

필자 소개

김양수

성균관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Pratt Institute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부 부교수, 조형대학 입시개선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AAL Design Inc., New York 디자이너, LLT Advertising, Inc., New York 디자이너, 주식회사 선연 디자이너, Kommunique[New York] 대표, 계원조형예술대학 멀티미디어학과 조교수, 경찰청 복제개선위원회 자문위원, 태국 실파콘대학 교환교수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디자인!비즈니스?(2002)」, 「디자인 다시보기(2005)」, 「디자인 다시보기(2006)」, 「디자인 디자이너 사전(2004)」(역)이 있다.